Reading insight

The tax collector Zacchaeus experienced salvation through meeting Jesus (19:1–10). When Jesus and his companions were near Jerusalem and people expected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soon appear, Jesus taught the parable of ten minas to teach them how to prepare for the kingdom of God (19:11–27). Finally, Jesus entered Jerusalem on a colt (19:28–40), and he wept over the city that will be destroyed. He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the merchants (19:41–46). After that, he taught daily in the temple (19:47–48).

Luke 19:41–48

41 And when he drew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42 saying, "Would that you, even you, had known on this day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But now they are hidden from your eyes.

43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set up a barricade around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44 and tear you down to the ground, you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upon another in you,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45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46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47 And he was teaching daily in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people were seeking to destroy him,

48 but they did not find anything they could do, for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his wor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44절)
Why did Jesus weep when he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19:43–44)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6절)
What did Jesus say when he entered the temple to drive out the merchants? (19:4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흐느낌의 눈물
Weeping tears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41절). 예수님은 머지않아 로마 군대가 침입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은 물론이요, 그 성읍 안에 거하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희랍어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읍(泣)'으로써 소리 없이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 때 쓰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으로 근심과 분노로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임함으로 멸망 당할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의 눈물이며, 동시에 그러한 심판을 자초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차별과 온갖 부정의를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지에 대해 근심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분노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When Jesus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19:41). Jesus wept as he predicted that the Roman army would soon invade and destroy the city and its splendid temple, as well as the slaughtering of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The Greek word used here is "klaio" that is in Chinese character "Eup(泣)" which means that a person weeps silently in a very low voice. Jesus wept with sorrow and anger with a burning heart.
Those tears are tears of sorrow for fellow Jews who will be destroyed as God's judgment descends like a raging fire. They were also tears of anger against the hypocrisy, disobedience, and pride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t the time who caused such judgment. We need these tears today too. We should weep at the racism and all kinds of injustice that are rampant in the land we live in. We must shed tears as we see the divided reality of our beloved Korea peninsula. We should weep with sorrow over God's return anticipating how harsh God's judgment will be. We should weep and cry in godly anger over the sins of all nations that will bring God's judgment upon oursel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2

December 수 Wed

수태고지 (受胎告知)

Annunci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1-38

새104장(통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서 기자는 서문(1-4절)에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 후,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5-25절)와 더불어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로 알려진 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사건(26-38절)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26-38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
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
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
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
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
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
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
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Reading insight

In the preface (1:1–4),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reveals that the purpose of his writing is to make Theophilus, the most honorable,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he has been taught." Then there is the story of John the Baptist's parents, Zacharias and Elizabeth (1:5–25). Known as the "Annunciation", it records the incident (1:26–38) where the angel Gabriel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Luke 1:26–38

26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of Galilee named Nazareth,

27 to a virgin betroth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28 And he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O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29 But she was greatly troubled at the saying, and tried to discern what sort of greeting this might be.

30 An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31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33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34 And Mary said to the angel,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35 And the angel answere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the
Son of God.

36 And behold, your relative Elizabeth in her old age has also conceived a son, and this is the sixth month with her who
was called barren.

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38 And Mary said,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6절)
What was the name of the angel who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1:26)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38절)
What did Mary say after hearing the angel's words? (1: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성탄절의 기적
Christmas miracle

중세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의 기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기적이며, 셋째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취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사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시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38절).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 stated that three miracles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birth of Jesus. The first is the miracle that Jesus, the Son of God,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use of a virgin body, and the second is the miracle that God came into the world as a man in the flesh. It was said that the third miracle was that Mary by her faith accepted the wonderful miracle that will happen to her. But which of these three miracles is the most incredible? In fact, conceiving a baby from a virgin's body can be trivial for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something out of nothing. And the fact that God became a man could be a truly amazing miracle.
However, believing that Mary herself was chosen to be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a miracle among miracles. It is the greatest miracle to believe and accept something that is absolutely unbelievable. Hearing her angel's words, Maria said, "I am the Lord's servant. May everything you have said about me come true" (1:38). Mary believed and accepted the incredible fact that Jesus, the Savior of all mankind, will be conceived in her own body by the Holy Spirit. As such, the miracle of Christmas is the miracle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3

December 목 Thu

마리아 찬가

Mary's Song of Praise

맥잡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야임을 알아보았다. 그 후,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Magnificat, 46-56절).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57-66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Benedictus, 67-80절).

누가복음 1:46-56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6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39-80

새112장(통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When Mary visited Elizabeth, Elizabeth recognized that the child in Mary's womb was the Messiah. After that, Mary praised God with joy (Magnificat, 1:46–56). Elizabeth gave birth to her own child and named him John (1:57–66). John's father, Zacharias, also praised God with joy (Benedictus, 1:67–80).

Luke 1:46–56

46 And Mary said, "My soul magnifies the Lord,

47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48 for he has looked on the humble estate of his servant. For behold,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49 for he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50 And his mercy is for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1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52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53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54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in remembrance of his mercy,

55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to his offspring forever."

56 And Mary remained with her about three months and returned to her ho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7–48절)
Why does Mary rejoice in praising God? (1:47–48)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2절)
What has God done to the rulers and the humble according to Mary's confession? (1:5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Thank you, Your Highness!"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46-48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의 어느 촌구석에서, 그것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비천하게 하녀 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다윗가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부른 찬송의 요점은 그가 받은 '영예'(honor)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심'에 있습니다.

만일 왕자가 거지의 손을 잡았다면, 격찬 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왕자로서, 그의 호의와 덕망이 칭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지의 입장에서는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 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에서 동냥하는 걸인을 만났습니다. 적선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 보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 한 닢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톨스토이는 걸인에게 "내 형제여, 지금 내게 돈이 하나도 없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걸인은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여가며 환히 웃는 낯으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황송하게도 '형제'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도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Mary said, "Oh, how my soul praises the Lord. How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took notice of his lowly servant girl" (1:46-48). She lived in a remote village in Nazareth, Galilee, where she had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and lived as a humble maid. But in His presence, she praised the grace of her God, who made her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Messiah of the House of David. Therefore, the point of Mary's song of praise is not about the "honor" she received, but about "God's favor."

If the prince took the hand of the beggar, it is the prince who deserves praise, and his favor and virtue should be praised. The beggar may say, "Thank you, Your Highness!" What can he say other than that?

Russian writer Tolstoy met a beggar on the street one day. He looked through his pocket to make his donation, but no coins were found. Feeling sorry, Tolstoy politely said to the beggar, "My brother, I have no money right now. I'm really sorry." Then the beggar bowed his head several times and said with a bright smile, "No. Sir, you gave me more than I asked for. You called me 'brother.'" It is the grace of God that has called us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ie because of our sins. We just say, "Thank you, Your Highness!" And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ow down before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4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The Birth
of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1-21

새125장(통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짤막한 기사(1-7절)와 더불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일군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펼쳐졌음을 알리고 있다(8-14절).

누가복음 2:8-14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text includes a brief account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2:1–7). On the night that Jesus was born, an angel appeared to a group of shepherds and announced the news of the birth of Jesus. At that time, a scene of a multitude of heavenly hosts praising God with the angel suddenly unfolded (2:8–14).

Luke 2:8–14

8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fear.

10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11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12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천사가 한 밤 중,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12절)
When the angel appeared to the shepherds guarding the flock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at did the angel say to them who were overcome with great fear? (2:10–12)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did the thousands of heavenly hosts say while praising God with the angel? (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매일 기쁨을 선사하는 방문객
A visitor who brings joy every day

미국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낮 12시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2-3분 만에 나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같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까?" "그야 물론 기도하고 나오지요." "기도라니 요? 그 짧은 시간에 대체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길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Jim 말입니다'."
약 한 달 후, 그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후, 병실에서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병실의 모든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응, 내가 이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그것은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이야. 그분이 내게 늘 기쁨을 주고 가거든." 간호사는 평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할아버지에게 방문객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방문객이라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방문객이 언제 찾아오나요?" "응, 날마다 나를 찾아오지. 낮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내 침대 곁을 찾아오거든.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내 귀에 속삭여. '여보게, Jim! 잘 있었나? 나 예수야!'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내게 기쁨을 한 아름 안겨주고 가시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를 찾아와 큰 기쁨을 안겨주고 가십니다.

Grandfather Jim living in the United States used to enter his church at noon every day and leave after 2-3 minutes. One day, a church manager called out to him as he left the church, "Grandpa, why do you come to church every day?" Jim responded, "Yes, of course, I come here to pray." "Are you praying? What are you praying for in that short time?" "I do not know how to pray long. I just pray like this. 'Jesus, Jim is here.'"
About a month later, the grandfather was hospitalized due to old age. But after he arrived, his smile never left him. One day, a nurse asked Jim. "Grandfather! You make all the patients in the hospital smile, is that true?" "Yeah, I'm giving these patients joy. It's all because of the visitor who comes to me. He always brings me joy." The nurse was surprised to hear that the grandfather had a visitor, and asked again, "A visitor? I've never seen anyone with you, so when does that visitor come?" "Yeah, every day he visits me. He comes to my bedside exactly at noon. He comes to me and whispers in my ear like this, 'Hey, Jim! How have you been? I am Jesus!' And then he gives me a lot of joy and goes away." That's right. Jesus, who was born on this earth 2000 years ago, still comes to us every day, giving us great jo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5

December 토 Sat

시므온의 찬송

Simeon's song of Praise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22-52

새122장(통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팔 일이 되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였다(22-24절). 그러자 선지자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Nunc Dimittis, 25-35절),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36-38절). 아울러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성장과(39-40절), 예수님의 유년기 (12살)에 있었던 사건(41-52절)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25-35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Reading insight

Eight days after Jesus was born, he was circumcised. On that day, Joseph and Mary went up to the temple in Jerusalem to offer the baby Jesus to God (2:22–24).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prophet Simeon embraced Jesus and praised God (Nunc Dimittis, 2:25–35), and then the prophetess Anna prophesied about Jesus (2:36–38). In addition, the writer of Luke records the story of Jesus' growth (2:39–40) and the events of Jesus' childhood (12 years old) (2:41–52).

Luke 2:25–35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26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27 And he came in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Law,

28 he took him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29 "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31 that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32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33 And his father and his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34 And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Behold, this child is appointed for the fall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for a sign that is opposed

35 (and a sword will pierce through your own soul also), so that thoughts from many hearts may be reveal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What kind of person is Simeon according to the Gospel of Luke? (2:25)

시므온이 특별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은 무엇입니까? (34-35절)
What did Simeon specifically prophesy about Jesus to Mary? (2:34–3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돌직구 예언
The straight fastball prophecy

선지자 시므온의 찬송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린 말씀이 평소에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아니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길흉을 말하는, 즉 주로 점쟁이들이 말하는 '운세 판단'(fortunetelling)이 아닙니다. 예언은 상대방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던지는 돌직구의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선민주의'(elitism)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더구나 시므온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라고 거침없이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참 예언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듯 함으로써, 때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 그 뜻에 꼼짝없이 순복하게 만듭니다.

The song of the prophet Simeon contains prophecies about Jesus Christ. In verse 33, Joseph and Mary were amazed when they heard the words of the prophecy. Why were they surprised? It must be because the words they heard were about things they had never imagined or could never expect to happen. It is here that the true value of prophecy is revealed. Prophecy is not just fortunetelling, which fortune tellers say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Prophecy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straight fastball, which throws the words as they are, regardless of the mood of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Simeon's prophecy, Jesus is not only the glory of the nation of Israel, but the light that illuminates all Gentiles. These are words that break the stereotypes of Jewish belief that was immersed in "elitism" at the time. Moreover, Simeon prophesied without hesitation especially to Mary, that Jesus was chosen for Israelites to be slandered and defeated and that "a sword will pierce your heart." Therefore, a true prophecy throws the straight fastball to a certain individual or country, sometimes causing pain and suffering like being stabbed in the heart. By doing so, they deeply understand the will of God which converts them to obediently submit to 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26 주일칼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김기석 목사 (청파감리교회, Korea)

동지가 지났으니 이제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저 먼 곳에서 얼핏 떠오르는 오련한 빛을 보고 안도한다.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을 때마다 한 해를 엄범부렁하게 살았다는 자책과 후회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들곤 한다. 성탄절이 연말 즈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성탄절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유력한 이들로부터 비존재 취급을 받던 이들을 감싸 안는 망토처럼 하늘이 땅에 내려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된다. 그분에게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것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숨을 품고 있는 신비이다. 예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하늘이다.

성탄절을 지나며 랍비 조나선 색스가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 네미로프(Nemirov)의 랍비가 사라지곤 했다. 읍내에 있는 회당과 학교에도 없었고, 문이 늘 열려 있는 그의 집에도 없었다. 어느 날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다. 랍비가 부재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늘이 아니면 어디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마

을 사람들은 평화와 음식과 건강이 필요했고, 랍비는 하늘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깊은 신뢰에 감명을 받은 리투아니아인은 그 사라짐의 비밀을 밝혀보기로 작정하고는 목요일 밤에 랍비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랍비가 조용히 탄식하며 우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랍비는 벽장에서 낡은 옷 꾸러미를 꺼내 몸에 걸쳤다. 거룩한 사람의 옷이 아니라 농부의 옷이었다. 랍비는 도구함에서 도끼를 꺼내들더니 밖으로 나갔다. 리투아니아인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랍비는 마을을 지나 숲에 들어가더니 굵은 나무 한 그루를 찍어 넘어뜨린 후 그것을 잘게 잘랐다.

그는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가 어둑한 뒷길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다. 가난하고 병든 늙은 여인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저는 바실리라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좀 팔고 싶어서요. 헐값에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나는 아주머니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분께서 제가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병이 들어 불을 피울 기운조차 없답니다." "제가 피워 드리지요." 랍비는 아침 기도문을 읊조리며 불을 피워드린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학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방문객들에게 랍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면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늘은 저 높은 곳, 인간의 손길이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분열된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어떻게든 곤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려는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이다. 진심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전면적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부둥켜안을 수는 없다 해도,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장소이니 말이다.

27

December 월 Mon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Controversy between Jesus and the religious leader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0장

새170장(통168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종종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다. 누가복음 20장은 다음 여섯 개의 질문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1)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1-2절); (2)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3-8절); (3)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9-19절); (4)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20-26절); (5)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27-40절); (6)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41-47절).

누가복음 20:27-40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Reading insight

Jesus often argued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Pharisees, priests, elders, and Sadducees). Luke 20 focuses on the following six questions: (1)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0:1–2); (2) "Is John's baptism from heaven or from man?" (20:3–8); (3) "What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 evil farmers?" (20:9–19); (4) "Is it lawful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20:20–26); (5) "Among all the seven brothers took her to be their wives, and whose wife will she be at the time of her resurrection?" (20:27–40); and (6) "Why do people say that Christ is the Son of David?" (20:41–47)

Luke 20:27–40

27 There came to him some Sadducees, those who deny that
there is a resurrection,

28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saying,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having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take the widow and raise up off-
spring for his brother.

29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ied without children.

30 And the second

31 and the third took her, and likewise all seven left no chil-
dren and died.

32 Afterward the woman also died.

33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ose wife will the woman
be? For the seven had her as wife."

34 And Jesus said to them, "The sons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35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to attain to that age
and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36 for they cannot die anymore, because they are equal to an-
gels and are sons of God, being sons of the resurrection.

37 But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in the
passage about the bush, where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38 Now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all live
to him."

39 Then some of the scribes answered, "Teacher, you have
spoken well."

40 For they no longer dared to ask him any ques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종파는 무엇입니까? (27절)
Which Jewish sect claims there is no resurrection? (20:27)

다음 구절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 )의 하나님이 아니요 ( )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 )이 살았느니라." (38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He is not the God of ( ), but of ( ), for to him all are ( )." (20: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현대판 사두개인들
Modern Sadducees

예수님 당시에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에 사람은 그저 현세에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모든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요점은 영생은 단순히 지상 생애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오늘에도 여전히 적합한 것으로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그의 이 주장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37-38절).

The Sadducees, known as rational realists in Jesus' day,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y thought that death would put an end to everything, so one should just be content with life in this world. Some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se days provide plausible scientific and logical evidence, denying all supernatural and spiritual things. We could call them modern-day Sadducees. The point Jesus made to the Sadducees is that eternal life is not simply a continuation of life on earth.
German theologian Karl Barth said in the final lecture during his career: "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His argument draws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in the text. "But in the account of the burning bush, even Moses showed that the dead rise, for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20:37-38).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8

December 화 Tue

종말의 징조들

Signs of
the End Times

맥잡기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동전 두 개를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다(1-4절). 그런 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5-24절)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25-28절)을 주셨다. 그 후,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잎사귀들 비유(29-33절)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34-38절).

누가복음 21:1-4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1장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When Jesus saw the rich and a poor widow give offering in the temple, he praised the widow who offered two coins (21:1–4). Then he gave warnings of the events of the end times (21:25–28) as well as warnings of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21:5–24). Then, through the parable of the fig tree, he gave instructions on how to live in the end times (21:29–38).

Luke 21:1–4

1 Jesus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offering box,

2 and he saw a poor widow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3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4 For they all contributed out of their abundance,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광경을 보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see in the temple? (21:1–2)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did Jesus praise the poor widow's offering? (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작은 것도 아름답다
Even small things are beautiful

흔히 사람들은 크고, 많고,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적고, 낮고 천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그 민족을 영도했던 모세의 손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추려내어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이 감추어진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미화로 penny와 같은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47절("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을 놓고 보면, 본문의 초점은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끝갈 데 없이 물질의 탐욕에 빠져 가난한 사람들의 것마저 등쳐먹었던 서기관들에 대한 탄식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작고 하잘것없는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Often people like things that are big, numerous, tall, and glorious. But God pays attention to what is small, little, lowly and ordinary. Moses, who rescued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and led the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for 40 years, had a run-down staff in his hand. A slingshot was held in David's hand, the boy who defeated the invincible Philistine general Goliath. Judge Gideon selected 300 warriors to fight the Midianites and in their hands were jars with trumpets and torches hidden. All of them were insignificant. However, God used them to do great and wonderful things.
In the text, Jesus sees a poor widow putting two small coins (the lowest value coin at the time, such as a penny in US currency) into the treasury and commends her for putting in more than everyone else (the rich). But looking at Luke 20:47 ("Yet they shamelessly cheat widows out of their property and then pretend to be pious by making long prayers in public. Because of this, they will be severely punished"), the focus of the text is not in the praise of the widow, but in the lamentation against the scribes who, in their endless greed for material things, devoured even the things of the poor. After all, Jesus' eyes are always on the outcasts and the little things they hold in their hands. In the sight of Jesus, they are all beautiful and precio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9

December 수 Wed

고난 당하신 예수님

Jesus in Suffer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2장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22장은 다음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롯 유다의 배반(1-6절); 유월절 준비와 만찬(7-23절); 제자들 사이의 언쟁(24-30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31-34절); 보냄 받은 자를 위한 새로운 가르침(35-38절); 예수님의 눈물의 간구(39-46절); 체포당한 예수님(47-53절);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54-62절);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63-65절); 공회 앞에서 심문 받은 예수님(66-71절).

누가복음 22:24-30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Reading insight

Luke 22 consists of the following accounts: the betrayal of Judas Iscariot (22:1–6); Passover preparation and supper (22:7–23); quarrels among the disciples (24–30); foretelling Peter's denial (22:31–34); new teachings for the called (35–38); Jesus' supplication in tears (22:39–46); Jesus' arrest (22:47–53); Peter's denial and repentance (22:54–62); the ridicule and insulting of Jesus (22:63–65); Jesus' trial before the council (22:66–71).

Luke 22:24–30

24 A dispute also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to be regarded as the greatest.

25 And he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exercise
lordship over them, and those in authority over them are
called benefactors.

26 But not so with you. Rather, let the greatest among you
become as the youngest, and the leader as one who serves.

27 For who is the greater, one who reclines at table or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reclines at table? But I am
among you as the one who serves.

28 "You are those who have stayed with me in my trials,

29 and I assign to you, as my Father assigned to me, a king-
dom,

30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누가 큰지 말다툼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습니까? (26–27절)
What lesson did Jesus give the disciples who were arguing over who was the greatest? (22:26–27)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9–30절)
What was the promise Jesus made to his disciples when he said, "you have stayed with me in my time of trial." (22:29–3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섬김의 역설
The paradox of service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26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항복하고, 지키기 위해 내어주며, 좋아지기 위해 고생하며, 살기 위해 죽는다"(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이것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섬김의 역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섬긴다"(we serve to rule over).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결코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장 큰 지위를 얻으려 하거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또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빌 2:5-11).

During the Last Supper before Jesu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the disciples argued with each other over who was the greatest among them. To such disciples, Jesus gave a teaching on servanthood: "In this world the kings and great men lord it over their people, yet they are called 'friends of the people.'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Those who are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take the lowest rank, and the leader should be like a servant" (22:26). There is a saying: "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This is a paradoxical truth. Jesus spoke of the paradox of service in the text "we serve to rule over."
A leader in the kingdom of God never intentionally seeks to occupy a high position, to attain the highest position that people will envy, or to enjoy great wealth and honor. They simply perform their role faithfully in an attitude of silently serving others. Also, a person who shows an example of true servanthood is not easily seen by people because he does not act pretentious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others. But in the end, the person unwittingly becomes the object of respect and takes a leadership position. Jesus was just that. The Son of God came into the world in the form of a servant, humbled himself, and was crucified to death. However, God exalted him and made him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C.f. Phil 2:5-11).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30

December 목 Thu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Jesus crucified

맥잡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보냈다(1-7절). 헤롯은 예수님을 심문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8-12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으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군중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13-25절). 결국, 예수님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26-38절), 그 중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다(39-43절). 예수님은 운명하셨고(44-49절),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취하여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 두었다(50-56절).

누가복음 23:32-43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3장

새269장(통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Reading insight

Pilate sent Jesus to Herod because he could not find any particular charge against him. (23:1–7) Herod sent Jesus back to Pilate after interrogation. (23:8–12) Pilate tried to acquit Jesus, but he could not overrule the crowd demanding crucifixion. (23:13–25) Eventually, Jesus was crucified with two criminals (23:26–38), one of whom received a promise from Jesus to enter paradise. (23:39–43) Jesus died (23:44–49), and Joseph of Arimathea, a member of the council, took the body of Jesus, wrapped it in linen cloths, and placed it in a tomb (23:50–56).

Luke 23:32–43

32 Two others, who were criminals, were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33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that is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34 And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cast lots to divide his garments.

35 And the people stood by, watching, but the rulers scoffed at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his Chosen One!"

36 The soldiers also mocked him, coming up and offering him sour wine

37 and saying,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38 There was also an inscription over him,"This is the King of the Jews.

39 One of the criminals who were hanged railed at him, saying,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40 But the other rebuked him, saying, "Do you not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41 And we indeed justly,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42 And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43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39절)
How did one of the criminals on the cross slander Jesus? (23:39)

그 행악자를 꾸짖은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43절)
When another criminal who rebuked the slandering criminal aske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ow did Jesus respond? (23:4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 개의 십자가
Three crosses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해골의 곳'이라 불린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있었고,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끝내 부인했던 한 강도의 십자가는 '완패'(完敗)의 십자가였습니다. 반역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강도가 진 십자가는 '역전승'(逆轉勝)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끄러운 전과로 가득했지만, 내세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초로 낙원에 들어가는 역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말씀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치의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요 19:30)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승'(完勝)의 십자가입니다.

Three crosses stood on the hill of Golgotha, called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Jesus died. There was a cross with Jesus hanging in the center, and two criminals were nailed together to the left and right of Jesus. It is not clear what specific wrong they committed, but they must have committed a crime serious enough to be punished with crucifixion. Each of the three crosses has a meaning. The cross of the criminal who mocked Jesus and eventually denied him was a cross of "the ultimate loser." It was the cross of defiance. The cross of the other criminal was the cross of "A come from behind victory."
He was a person who succeeded in a splendid comeback by believing in Jesus, realizing his own sin, and repenting while helpless on the cross. Although his life on this earth was full of shameful crimes, in the hereafter he was honored to enter Paradise for the first time with the Lord. Also, the story of the criminal who was saved shows that by the time Jesus died on the cross, the word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were fulfilled (Luke 19:10). Jesus finally died without any regrets, exclaiming "It is finished" (John 19:30). The cross of Jesus is the cross of complete victo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31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

The Resurrection and Appearance of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4장

(복음성가)
엠마오의 두 제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가 직접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다(1-12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고(13-35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36-43절). 그 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44-49절)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50-53절).

누가복음 24:22-35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
느니라 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
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
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Reading insight

When the women went to the tomb with spices at dawn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two angels announce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women informed the apostles, and Peter himself confirmed that the tomb was empty (24:1–12).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ir way to Emmaus and taught them about Christ (24:13–35), and also appeared to the gatherings of his disciples and ate grilled fish together (24:24:36–43). After that, he taught them to understand the Scripture (24:44–49) and after blessing his disciples he ascended into heaven (24:50–53).

Luke 24:22–35

22 Moreover, some women of our company amazed us. They were at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23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back saying that they had even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that he was alive.
24 Some of those who were with us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just as the women had said, but him they did not see."
25 And he said to them, "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26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enter into his glory?"
27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pret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28 So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He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29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aying, "Stay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 is now far spent."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30 When he was at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31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32 They said to each 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33 And they rose that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y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34 saying, "The Lord ha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35 Then they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책망하신 말씀은 무엇 입니까? (25–26절)
How did the resurrected Jesus rebuke the two men on their way to Emmaus after hearing their conversation? (24:25–26)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What happened when the resurrected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gave it to the two men at the meal? (24:3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최후의 승자
The ultimate winner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웃음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에 속한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비겁한 빌라도는 자신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로 웃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최후로 웃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최후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The hearts of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always filled with joy. No matter what,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in life, they never lose joy. They do not despair or give up easily. They are not capricious according to their moods or emotion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ells us that God has given us the last laugh. There is a saying, "The person who laughs last is the ultimate winner." In that sense, God is the ultimate victor. At that time, the council members belonging to the Sanhedrin, the highest body of Judaism, who judged Jesus,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Cowardly Pilate who sentenced Jesus to be crucified even though he knew Jesus was innocent, thought he was the last to laugh. Even the Roman soldiers who whipped Jesus, punched Him, spit on Him, ridiculed Him, and finally crucified Him,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But it is God who laughs last.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tomb, laughed for the last time. All Christians who participated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ill have the last laugh: we all will be the ultimate winn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10, $20, $30, $50 per month □하루 $1 per day □한달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1년 12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 누가복음 5:1-1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잃어버린 아버지 | 누가복음 15:25-3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공평함의 복음 | 누가복음 1:46-56**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닭 울음 소리 | 누가복음 22:31-34, 54-62**

1주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5:1-11**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복음성가)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① 여는 질문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말씀을 가르치신 후,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진맥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편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수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배 두척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7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8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모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서 기자와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4:19; 막 1:17).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람 낚는 어부'(fishers of men)라는 표현을 '사람을 [산 채로] 취하는 일'(catching men)로 바꾼 것입니다(아쉽게도 개

역 성경에는 '산 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희랍어 단어('조그론')의 뜻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생포하다'(딤후 2:26)로써 칠십인역(LXX)에서는 흔히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민 31:15, 18; 신 20:16). 그러므로 누가복음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름 아닌 사람을 생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자입니다. 즉, 전도란 사람을 생포하여 죄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2.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절)

④ 삶 속으로

1.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허탈한 삶이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전적인 포기가 제자직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5: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⑥ 자녀와 나눔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15:25-32**

잃어버린 아버지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① 여는 질문

아버지가 나로 인해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면서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존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당시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변합니다. 맏아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29-30절). 이 말속에서 맏아들은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실상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맏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맏아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28절).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와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말에 발끈하여 아예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그를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했다'는 말의 희랍어 동사는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호소하다, 간청하다는 뜻과 더불어 달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바로 여기에서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고. 요한복음 16:7). 맏아들의 반항에 대해 아버지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호소했고 사랑으로 달랬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31-32절).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얘(my son)"라고 부르

셨는데, 아버지가 한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또 너도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속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음에 품고 살던 두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한 암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에게는 품삯이 주어지나 아들에게는 유산이 주어집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맏아들이 분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9-30절)

2. 그렇게 분노하여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2절)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평소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인처럼 의무감에 붙들려 섬김과 복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처럼 기쁨으로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까?

2.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31-32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⑥ 자녀와 나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아빠가 나로 인해 가장 기뻐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1:46-56**

공평함의 복음

새117장(통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새120장(통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새126장(통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① 여는 질문

이민생활 중에 억울하게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본문은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명칭은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Vulgate) 성경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주를 찬양했다"라는 문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찬가의 내용은 본문 51-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평등화'(equalizing), 혹은 '동등화'(leveling)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며, 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될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 메시야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계급차별, 지식차별, 외모차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중에 차별과 싸우시고 친히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함의 복음은 모든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곧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장차 이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알고 찬송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온 세상에 평등과 동등의 가치를 구현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등함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8절)

2.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 ) 자들을 흩으셨고 ( )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 ) 자를 높이셨고 ( )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 )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51-53절)

④ 삶 속으로

1.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화의 복음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1-53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⑥ 자녀와 나눔

누군가 나를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이유로 차별했나요?

닭 울음 소리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① 여는 질문

누군가에 의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31-32절).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종종 사탄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만심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일종의 허황된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34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앉았는데 마침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라"라고 다그치자 그 자리에서 정확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통곡의 회개로 이끈 것은 예수님을 세 번씩 연거푸 부인했던 그를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닭이 울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닭 울음소리는 자만심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결국,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훗날 그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서 복음 전파의 선봉장이 되게 했던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베드로는 닭 울기 전,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4절)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62절)

④ 삶 속으로

1.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혹시 한 해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 한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돌이켰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22:61-62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⑥ 자녀와 나눔

올 한 해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You will fish for people"

1 Opening Question

Share an experience when you tried your best and didn't get the results you desired.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One day Jesus saw two boats on the Sea of Galilee (Lake Gennesaret). While the fishermen were washing their nets when they got off the boat, Jesus got into Simon Peter's boat and taught them the Word. Without any explanation, Jesus told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4). In fact, they had fished all night, but did not catch a single fish. Thus, in the morning, exhausted, they were washing their nets. Jesus knew the situation and said to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Then Peter answered, "Teach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5:5).

In obedience to Jesus' command, Peter got into the boat and lowered his nets into the depths of the water. As a result, he caught so many fish that the nets were torn. Unable to do anything on his own, he turned to James and John, his partners in another boat, for help. He filled two boats with the fish he had caught, and the boats were submerged in the sea (5:7). Then Peter fell down at Jesus' knees and confessed, "Depart from me, Lord, I am a sinner" (5:8). After that, all of them brought their boats onshore, left everything behind,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He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to Simon Peter, "Do not be afraid, for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5:10). Regarding the same incident, the writers of Matthew and Mark recorded Jesus saying,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C.f. Matt 4:19; Mark 1:17). Therefore, the writer of Luke changed the expression "fishers of men" to "catching men [alive]." (Unfortunately, in the ESV, the Greek word "zogron" which means "alive" was not translated literally.)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word is "to

be taken alive" (2 Tim 2:26), and is often used in the Septuagint (LXX) to mean "to deliver life from danger." (C.f. Num 31:15; Deut 20:16) Therefore, according to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a disciple of Jesus Christ is an evangelist who brings people alive and leads them to salvation. In other words, evangelism is about taking people alive and delivering them from the dangers of sin and death.

3 Into the Word

1.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labored all night and did not catch any fish? (5:4)

2.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was shocked to see so many fish caught that the nets were torn? (5:10)

4 Into our Life

1. The fact they caught so many fish that their nets were torn is a symbol of how empty the previous lives of the Galilean fishermen at that time was. This amazing miraculous event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If you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change in your life since meeting Jesus, please share.

2. Luke 5:11 says,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Jesus." This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total renunciation of possessions is a prerequisite for discipleship. Please share what you will give up to follow Jesus.

5 Memory Verse - Luke 5: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Share how you have changed since you believed in Jesus?

Prodigal Father

1 Opening Question

Please share something you did that made your father happ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 the older son, who grumbled in anger over his father who had prepared a big feast for his younger brother, his father was nothing but lost. The older son in this parable represents the Pharisees and scribes, the self-proclaimed righteous people of that time. The older son said. "I have served my father for many years, and I have never disobeyed his orders, but he never gave me a young goat so that me and my friends could enjoy it. When this son who squandered his father's livelihood with prostitutes came back, he killed a fattened calf for him!" (15: 29–30). In these words, we see that the older son never left his father's arms, but in reality, he lost his father. In other words, in the opinion of the older son, the father was not an object of love and respect, but of service. He was like a master who gave strict order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way a father treats his older son who has lost his real father. "[The eldest son]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but his father came out and persuaded him" (15:28). The eldest son was furious at the news that his father had held a feast when his younger brother returned and had no intention of entering the house at all. Then his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encouraged him. Here, the Greek verb for "recommendation" is "parakaleo", which means to appeal, to plead with, as well as to appease, comfort, invite. (The word "Comforter" came from the word "parakletos" [C.f. John 16:7]). The father did not command the rebellious older son. On the contrary, he appealed and comforted him with love.

The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comforted the eldest son, saying: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and he was lost and is found" (15:31–32). His father called him "my son" in a sweet voice, and he said, "You are my son and I am your father," meaning "you are always with me, and I am always with you." In particular, we see that in the words "all that is mine is yours," there is an allusion to his desire for the inheritance that the father will leave to his two sons. A slave is given a wage, but a son is given an inheritance

③ Into the Word

1. Why was the firstborn son angry and did not go into the house? (15:29–30)

2.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eldest son who complained in anger? (15:31–32)

④ Into our Life

1. If God is my father, how do I usually deal with God the Father? Are you just serving and obeying Him like a servant, caught up in a sense of duty? Or are you giving Him love and respect with joy like a son?

2. Please share the problems the inertia–soaked religious life has.

⑤ Memory Verse - Luke 15:31-32

"And he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Was there something that pleased your father? What is the most recent thing you have done that pleased him?

Gospel of Equality

1 Opening Question

If you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during your immigration life, please shar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is the Hymn of Mary, known by the name of the Magnificat. This name is derived from the phrase Mary "praised the Lord" in Luke 1:46 of the Latin Vulgate Bible. The content of the hymn tha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are verses 51-53.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This song reveals that when Jesus comes into the world he will do the work of "equalizing" or "leveling". In other words, the song refers to the work of lowering the high and exalting the low, making the hungry full, and sending the rich away empty-handed, so that all people will be equal before God. In fact, this is the core of the gospel that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is trying to convey through Jesus. But these words are similar to Isaiah 40:3-5, which the prophet Isaiah had long ago prophesied about the Mess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all people wi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discrimination from "the powerful" has existed in this world. Even now,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racism, sexism, economic disparity, class discrimination, knowledge discrimination, and appearance discrimination. During the ministry of his public life, Jesus fou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eliminated discrimination

himself. Therefore, Jesus Christ's gospel of equality directly rejects all discrimination.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is the vision Jesus had. Mary had testified with her hymns, knowing in advance that baby Jesus in her own womb would do this in the future. Jesus Christ is the one who embodies the value of equality in the world. Therefore, all Christians must be messengers of this gospel of equality.

③ Into the Word

1. Mary sings in Luke 1:47, "My heart rejoiced in God my Savior." Why? (1:48)

2. Please fill in the blanks: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 )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 )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 He has filled the ( )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 ) away empty. (1:51–53)

④ Into our Life

1. What are the fundamental reasons why people discriminate against others?

2. Let's share what the church should do when faced with the gospel of equalization of Jesus Christ.

⑤ Memory Verse - Luke 1:51-53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s anyone ever discriminated against me? What did you think at the time?
Or, have I ever discriminated against others? Why did you discriminate?

The crowing of the rooster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been betrayed by someone?
Please share how you felt at that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esus gave Peter this warning: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manded to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22:31–32). Jesus spoke these words looking into the future of Simon Peter. It is a promise that Jesus will keep praying for him even though Peter will be often tempted by Satan.

Peter must have been conceited after he heard the words of this promise. So he cried out,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It's kind of like a false promise. Hearing his words, Jesus said,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that you know me three times" (22:34). Not surprisingly, when Jesus was arrested and entered the high priest's house, Peter followed him from a distance. Then he sat among the people who were sitting around the fire. When people recognized him and insisted, "You were with him, too," he denied Jesus exactly three times on the spot. At that very moment, the rooster crowed. Then,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Peter, he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said,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In fact, what led Peter to weeping repentance must have been the Lord's gaze on the one who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in a row. However, if the rooster hadn't crowed at that moment, he might not have remembered the words of the Lord. The crowing of a rooster awakened Peter from his pride.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a sound that awakened Peter, who had not prayed but depended on his own strength. In the end,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like the merciful voice of the Lord who made Peter realize his own weakness, develop his strong faith, and become the vanguard of evangelism.

3 Into the Word

1. How many times did Peter deny that he knew Jesus before the rooster crowed? (22:34)

2. What did Peter do when he heard the crowing of a rooster and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22:62)

4 Into our Life

1. Have you made any promises to the Lor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f there are any promises you haven't kept in the past year, please share them.

2. Hearing the rooster crow, Peter came to his senses, thoroughly turned away from his sins and repented. Please share what you experienced during the year when you were reminded of the Word of the Lord and changed your heart through some intermediary.

5 Memory Verse - Luke 22:61-62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you have not been able to keep a promise you made with someone over the past year, what is the reason for not keeping your promise?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 3022587**
Country : **Honduras**
Serving At :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 **Costa Rica – San Josè**

Jimenez Rojas, Yorleni R.

Yorleni R. Jiménez Rojas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mission program director for the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She is based in Tegucigalpa, Honduras.

Ms. Rojas' program focuses on congregational development. Her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developing, promot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strategic directions for programming; working with Honduran entities in advancing general programming; and identifying and administering mission funds congruent with programming.

Although Methodism came to the northern coast of Honduras 100 years ago through British Methodism, and later with the Methodist Church of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t is fairly new for the Honduran Spanish-speaking community. The mission in Honduras began in 1998. In 2002, the Honduras Initiative officially became a United Methodist mission. It currently includes 19 congregations and 53 faith communities. As an emerging new church, the mission is showing urgent need for pastors and the development of clergy and lay leadership.

The Honduran Mission constituency is largely composed of economically marginalized people with limited formal education. One area getting Ms. Rojas' attention is in-country networking and alliances with other secular, nongovernmental and Honduran religious organizations. Fostering those relationships not only strengthens the Honduran Mission with national

resources, but also continues to forge its Honduran identity and empowers the cultural aspect of the mission. Ms. Rojas' position is crucial in guiding the Honduran Mission to maturity.

Born in Costa Rica, Ms. Rojas was 8 years old when her family converted to Christianity. Passionate about studying the Scriptures, she said, "I had a burning desire to serve God." As a youth, she taught Sunday school and encouraged others to follow Jesus. Entering the university, she began studies in psychology and journalism. "I had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he recalled, "and psychology was a good medium for it. The journalism career I left aside because of economic limitations." She earned a psycholog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osta Rica and started pursuing a master's degree with an emphasis on the Old Testament.

Prior to her current assignment, Ms. Rojas was a psychotherapist at Casa Main Project, working with girls ages 2 to 12 who had suffered abuse. She helped to plant and served as a pastor of Jesucrista Pan de Vida (Jesus Christ Bread of Life), an independent church. In charge of Christian education, she also preached. She experienced what she called "a second stage of questioning in my Christian pilgrimage, which had been characterized by much service. I began a search to find a genuine Christian spirituality, centered on being and not so much on doing (activism)," she said. "This helped 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human nature, in contrast to the divine nature, and to be able to resize issues such as faith, grace, salvation and mission."

Confronted by multiple losses, Ms. Rojas entered what she termed "a time of dispossession, where only the grace and love of God sustained me. God comforted me and guided me through a process of healing and freedom, and made me resize my ministerial call," she said. "My fervent desire is to arrange my life so that God's purpose is fulfilled in me, and that everything he has given me is at his service."

Ms. Rojas has a daughter, Rebeca, who is a member of Comunidad Cristina Perdonados para Servir (Community Cristina Forgiven to Serve) in San José, Costa Rica. The church is part of an independent denomination.

Contact Info: yjimenezrojas@umcmission.org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중보기도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중보기도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인 셈이다.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하다(출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한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화를 거두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 것 역시 중보기도에 속한다(창 18:16-33).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눅 22:32),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요 17장)'를 드리셨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원리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다. 예컨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청원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 경우에도 중보기도가 가장 어려웠다.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은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고(고전 8:1)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다. 사랑이 있는 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중보기도가 터져 나온다.

또한 중보기도는 믿음의 문제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중보기도가 실제로 그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직하게 믿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임명받았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벧전 2:9, 계 1:6), 제사장 직무의 중심은 중보에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중보기도에 대해 고민하던 중 깨달은 게 있다.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영성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우주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의식 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혼이 벌이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여 돕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여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중보기도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몇 가지 안내를 따라 훈련해보기를 권한다.

첫째,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둘째,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라. 중보기도에서도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두라. 그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빌고, 그 영적 능력으로 그가 봉착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으라. 중보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주는 '부수적인 은혜'이다.

넷째, 기도의 관심을 넓혀 가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통곡하셨었다(눅 20:41-44). 우리도 중보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아야 한다. 주님처럼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중보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임을 믿어야 한다.

다섯 째,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을 별도로 할애라. 관심을 넓혀 가다 보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이 많은 대상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려면 목록을 만들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이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중보해야 할 사람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말로 명단을 훑어 내리고 만다. 이 경우, 중보의 책임을 다했다는 자기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의문이다. 중보기도의 대상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하루에 한 그룹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섯 째,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 대상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강한 연대감이 형성된다. 기도사역으로 형성된 연대감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된다.

일곱째, 중보기도의 순간을 포착하라. 중보기도 방식 중에 소위 '총알 기도(canon prayer)' 혹은 '화살 기도(arrow prayer)'라는 것이 있는데, 즉석에서 짧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가 필요한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할 기회를 잃는다. 그 기도는 비록 짧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모두 중보기도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 기도로써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라는 고귀한 부름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세인 것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11

피할 수 없는 광야, 피할 수 있는 광야

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두 번의 큰 광야를 경험했다.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 광야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시나이 광야를 통과했다. 두 번째 광야는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기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났던 광야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광야였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광야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광야였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겪지 않았을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 불망 불명 불순종을 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40년이

나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가 70년동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난 이야기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에 돌아가도록 하셨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광야에 모래 구덩이 속에 파묻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다. 가나안(이집트, 왕궁)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는 쫓겨서 들어간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들어간 광야였다.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 없이 지난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한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nobody로 살아야 했지만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somebody가 되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모세의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광야와 같은 광야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통과한 광야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광야를 연상시킨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광야에서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나와 출애굽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광야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셨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말씀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율법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기적이 다반사였다. 매일 기적을 보며 살았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일체를 다 책임져 주셨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냈는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들어간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

야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 에서처럼 나타나시지 않았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 때도 그랬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광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광야였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라고 들여보낸 광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들여보내신 광야였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한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멀리멀리 계셨다. 안 보였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달려오셨는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모르는 체하셨다. 징벌의 광야, 심판의 광야였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다 첫 번째 광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신을 차렸다.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복역의 기간"을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으로 단축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처음에 선고한 대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2년에서 40년으로 형이 늘었지만, 두 번째 광야에서는 모범수였는데도 70년 형을 다 채운 다음에야 풀려나게 하셨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구원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 가나안을 지켜야 한다. 그곳에서 kick out 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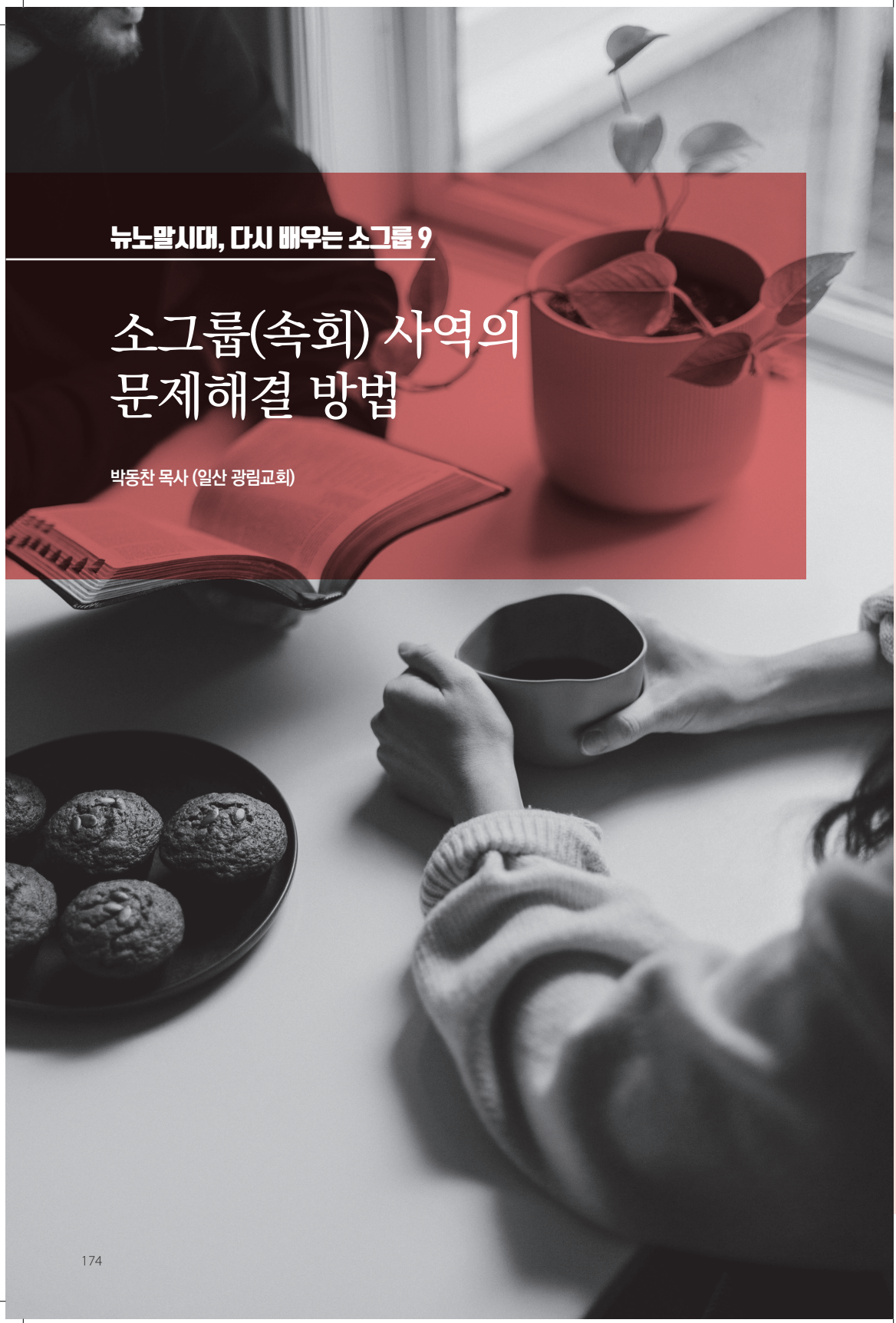
첫 번째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은 계속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만 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바벨론에서 지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 나라를 잃었다. 나라가 망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자 회당을 세웠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면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가나안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이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탈무드도 이 시기에 기록되었다. 바벨론 포로기에 진정한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가나안 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교가 시작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첫 번째 광야(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신앙이 700년 이상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진짜 밀월 기간은 출애굽 광야도 아니었고 가나안 정착 시대도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광야 시기에 영적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실망시켰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광야는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광야였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광야가 되게 해야 한다.



뉴노말시대, 다시 배우는 소그룹 9

소그룹(속회) 사역의 문제해결 방법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소그룹(속회)을 운영할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교인들을 소그룹(속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문제, 소그룹(속회)원들을 격려하는 효과적인 방법,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 1 어떻게 권면해야 소그룹(속회)에 참여할까요?

소그룹 리더(속장)로서 처음 또는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소그룹(속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의 소그룹(속회)이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그룹(속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속회)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권면을 위해선 소그룹(속회)에 대한 리더(속장)의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증을 준비하여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곳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회는 위로와 힘을 얻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를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입니다. 리더(속장)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온 소그룹(속회)원들이 함께 위로하고. 붙잡아 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문제를 이기게 되었던 구체적인 간증들을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9~10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참고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모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소그룹(속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신앙적인 분별과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게 될 때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논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15:22(새번역)

소그룹(속회)은 거룩함(성화)을 이루어 가는 상호 돌봄이 일어나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생존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는 이들을 동료이기보다 경쟁자로서 인식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잠언27:17(새번역)

문제 2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작은 장점이라

도 찾아서 칭찬하면 소그룹(속회)원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허물이 있다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덮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격려는 도리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더(속장)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격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13:13~15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대부분 격려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경청이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원이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들어 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격려는 이해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은 카드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어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 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격려의 방법입니다.

문제 3 소그룹(속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은 여러 다양한 신앙의 수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선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갈등은 철저하게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다 보면 말씀 앞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성향들로 인해 관계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적인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와 상의하며 반드시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원들간의 표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 그 원인과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면한 갈등이 비판과 정죄로 끝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쓴 뿌리'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속회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 이면에 있는 각자의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깊은 감정들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표출된 갈등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리더(속장)는 갈등해결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그룹(속회)원들 사이에 상호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의 과정 가운데 소그룹(속회)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열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속장)는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상호 책임의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갈등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갈등의 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 내의 갈등과 긴장을 인정하고 용인하면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의 문제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믿음상(간증) - 전체 1등}

네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Part 2)

박현숙 사모 (가나연합감리교회, VA)

나는 위태로운 사역지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앞에 COVID-19이라는 괴물이 찾아왔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였다. 죽기 전에 마지막 봉사를 결심했다. 뱀이 나올 정도로 자라버린 1.5에이커의 교회 잔디밭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털썩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남편은 팔을 끌어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홈리스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나는 자고 나면 한 뼘씩 자라있는 잔디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구름이 무등을 태워 대신 일해 주었다. 나는 구름 위를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았다. 교회문은 닫았으나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충성스러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직장암이라고 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데다가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남편은 곧장 기도원으로 향했고 금식을 시작했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식을 했다. 누군가를 살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밥해줄

사람이 없는 그녀를 위해 나는 한 달 동안 밥을 지어 날랐다. 식은땀이 겹줄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알 턱이 없었다.

이웃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특별히 ㅅ교회 K목사님은 내 상황이 긴박할 때마다 그랬다. 다 알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처음이 아니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되었다. 내 앞에 지나가는 배고픈 이들에게 무수히 밥을 먹였더니,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셨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걱정 없이 아플 수 있었다. 이슬도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나가던 조경회사 차가 8톤의 멀치를 공짜로 교회에 부려놓았다. 교회보다 큰 산이 넷이 생겼다. 우리는 새벽부터 땅거미 질 때까지 삽질을 했다. 높고 단단한 산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허물어지고 마침내 산은 옮겨져 있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였다. 그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믿음을 드렸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동산은 풍성해지고 열매들은 코로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라났다. 삽질은 살이 빠져 헐렁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운동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교류가 없던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 중, 가나교회가 계속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을 보내드려요." 비가 새던 교회 지붕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딱 그만큼이 필요했었다. 여름장 마에도 걱정 없게 되었다. 세상은 코로나가 밀물처럼 덮어 버렸으나, 교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천에 과일이 익어가고 채소들이 자라났다. 교회 동산에 물을 주는 일이 낙이었던 불쌍한 교우 한 분이 돌아가셨다. 또 장례가 났다.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고급진 도시락을 만들어 할아버지 배낭에 넣어드리고 영원한 나라로 소풍을 보내드렸다.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쁘셨다.

교회 공터에 놀이터를 짓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

누가 온다고 놀이터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름 땡볕에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모래와 멀치를 덮었다. 빨간 지붕이 올라가던 날, 남편은 '드림랜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이들이라야 고작 셋이었다. 한 가정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 입국도 어렵던 시기였는데 일사천리로 이민 수속을 밟았다고 했다. 아이들 둘이 늘어 다섯이 되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놀이터에서는 해 넘어갈 때까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즈음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교회 아름드리나무들이 옆 건물로 넘어져 진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곱 그루를 베어내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일군들을 돕다가 가장 큰 나무 밑동에 팔이 깔리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지게차가 와서 그의 팔을 꺼냈다. 팔은 멀쩡했다. 옆 건물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옆 건물은 '베트남 불교 미주본부'이다. 그날, 나는 잔디를 밀다가 언덕배기에서 몇 바퀴 굴렀다. 위험천만했다. 기계는 굉음을 내며 불꽃이 튀었다. '쾅 쾅!!' 나는 풀떼기들을 떼어내며 사뿐히 일어났다. 옆 건물 스님들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조용히 드러내셨다.

남편은 '전교인 5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미국과 세상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주셨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다. 마침, 버지니아 주지사는 앞으로 3주 뒤부터 50명까지의 집합을 허용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날은 우리교회 '오십일 작정기도' 가 끝나는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 볼 수 있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약물치료에 들어갔다.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호르몬 문제, 갑상선 등 온전한 데가 없었다.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센서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빨간불이 켜지고 뚝뚝 떨어

지던 저혈당도 제 자리를 찾아갔다. 치료는 속했다. 회색으로 보이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땅 위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편과 나란히 걷는 날이 많아졌다. 각자 살아내느라 서로 늙어 버린 것도 몰랐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려서부터 폐 기능이 좋지 않았다. 앉아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가파른 사역의 길을 지친 몸으로 달렸으니 쓰러질만했다. 서너 걸음도 뗄 수 없었던 내가 언덕을 오르고 두 시간을 쉬지 않고 걷는다. 기적이다. 나는 이제 걷고 폴짝거리며 뛴다. 내리 달릴 수 있다. 폐 기능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다.

일 년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지켜보고 계셨다. 긴박하게 써 내려갔던 유언장을 펴 보았다. 고통과 고난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정지'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었다. 나는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애 많이 썼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고생 많았어, 잘 견뎌 내었다, 수고했어."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 있는 풀 한 포기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물며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묶어 놓았던 현실과 코로나도 나를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내가 서 있던 벼랑 끝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치유의 자리,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였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예레미야 29:11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코로나는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었다. 잔디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다시 시작이다. 4월이다.

{수필분야 - 소망상(1등)}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 욥기의 새로운 이해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지난 12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지난 6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본문은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가짐으로 욥기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 고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욥기에 대한 나의 이해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회복 및 축복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과 그의 세 친구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 했던 욥의 신앙을 저의 본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므로 잘 이겨내면 더 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묵묵히 견뎌보려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

용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6월의 욥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욥기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전제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둘째는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1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는 말씀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8, 2:3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욥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욥의 의로움을 '세상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욥만큼 의로운 자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욥기 42:5,6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그의 잘못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지만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며 바벨탑처럼 쌓여가는 자신의 의를

지키려는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으며, 욥은 이를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들 -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대신해서 빠짐없이 번제를 드림(1:5),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김(23:12), 이웃에게 베푸는 일(24장), 지나친 금욕(31:1,2)과 구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는 일(27:4,5,6).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가 정금같이 빛나지기를 바라는(23:10) 기대(소망, 믿음).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욥의 열심과 기대를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지나온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욥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멘토처럼 되었으며 그러한 욥을 본 받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32장 이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이 욥기 31장까지에 머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세 친구와의 변론이 끝난 후, 엘리후(32:2, 34:5,6,7)는 "나는 충분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으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인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하는 모든 행실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 하셨습니다(33:17). 모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대속물과 중보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33:24,26)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속물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욥'을 거듭 책망(40:8) 하셨습니다.

결국 욥기 42:6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한동안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

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회개해야 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의에 집착하고 자신의 의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의를 세우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 하고,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즉 스스로를 흙과 같이, 티끌과 재와같이 여기면서 회개하나이다(곧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주체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욥기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한 후 다시 읽고 묵상하였을 때, 욥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셔서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없이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가운데 빛나는 신약이었으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욥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6월, 욥기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지만, 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지불한 대가를 나의 의로 여기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나를 율법 아래 매이게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 성취될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나의 신앙의 자세도 어쩌다가 생겨난 바이러스에 대해 내가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갈수록 '나의 의를 세우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욥기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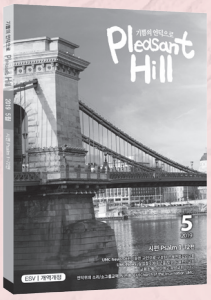
Memo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벧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드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Memo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이광훈 목사 (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주일 칼럼**
  송종남 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이승우 목사(워싱톤연합감리교회, MD)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